

# 한국어의 동사(Ⅱ)

- 한국어 동사의 통사론

김종명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연구원

## 1. 머리말

이번 글에서 우리는 한국어의 동사 및 그 구문이 지니는 주요 통사적 속성을 살펴본다. 통사적 속성이란 대개가 의미적 속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동사 및 그 구문의 통사적 속성에 관한 본 논의에서는 통사적 속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적 속성을 부분적으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본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최근의 언어학적 논의를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입장을 취한다.

## 2. 한국어 동사구문의 통사구조

### 2.1 한국어 동사구문의 유형론적 특징

언어는 동사구문에 나타나는 격 체계의 유형에 따라, 크게 주격(nominative

case)/대격(accusative case)의 체계를 갖는 언어와 능격(ergative case)/절대격(absolute case)의 체계를 갖는 언어로 분류된다. 영어나 불어 등이 속해 있는 전자의 언어는 타동사의 주어와 자동사의 주어가 동일한 격 표지를 갖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다른 형태의 격 표지를 갖는다. 바스크어나 오스트레일리아 토착어 유와알라라이어 또는 알래스카 언어인 유픽어 등이 속해 있는 후자의 언어는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가 같은 격 표지를 갖고 타동사의 주어가 다른 격 표지를 갖는다. 한국어는 전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동사구문의 어순을 살펴보면 한국어는 일본어, 몽골어, 터키어 등과 함께 SOV(주어 + 목적어 + 동사) 어순을 취하는 언어 유형에 속한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는 문요소들의 자리바꿈이 매우 자유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OV를 기본어순으로 취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리바꿈을 가능케 하는 문법표지를 모두 생략한 구문은 SOV의 어순으로만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그 외의 어순으로는 해석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                                  |               |
|----------------------------------|---------------|
| (1) 가. 내가 너를 미워한다                | 나. 너를 내가 미워한다 |
| 다. 너를 미워한다 내가                    | 라. 내가 미워한다 너를 |
| (2) 가. 나 너 미워한다 (= “나는 너를 미워한다”) |               |
| 나. 너 나 미워한다 (= “너는 나를 미워한다”)     |               |
| 다. ??미워한다 너 나                    | 라. ??나 미워한다 너 |

## 2.2 논항과 부가어

동사구문에 나타나는 동사 이외의 문요소는 그 구문을 특징짓는 필수적·준필수적 논항과 그렇지 않은 수의적 요소인 부가어로 구분된다. 필수적 논항은 동사와 내재적인 통사·의미 관계를 맺는 논항으로서, 삭제되면 그 구문이 비문법적이 되는 논항이다. 실제로 이런 논항의 예는 한국어에서 아주 드물다

(‘길수를 사위로 삼다’의 ‘사위로’나 ‘서울로 향하다’의 ‘서울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준필수적 논항은 동사와 통사·의미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서 동사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될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지만 생략이 가능한 논항이다. 그렇지만 논항과 부가어를 구분짓는 필요충분하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는 형식적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언어가 보이는 대부분의 양상이 그렇듯이, 그 둘의 구분을 단절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일한 문요소가 동사에 따라서, 논항의 성격을 띠기도 하고 부가어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나타내는 ‘-에서’ 보어는 그 분포가 넓고 수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가어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음 구문에서는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논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길수는 (서울에서 + \*E!) (살았다 + 머물렀다 + 거주했다)

또 (4) 구문에 나타나는 요소들도 다른 구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부가어의 성격을 띠는 요소들이지만 해당 구문에서는 특별히 논항의 지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sup>2)</sup>

(4) 그가 바보처럼 군다 / 길수가 영희보다 낫다

이 책의 무게는 10 킬로 정도 나간다

한국어 동사구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에서 최대 네 개까지 논항을 가질 수 있다.<sup>3)</sup>

1) 여기서 E는 해당 자리에 아무 요소도 오지 않고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약호이다.

2) 연구자에 따라 이를 필수적 부가어라고 하기도 한다.

3) 일견 4 개 그 이상의 논항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아래와 같은 구문들도 있다.

(5) 아기가 운다 / 나는 서울에서 산다 / 길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그는 나를 학교에 보냈다 / 길수는 그 집을 한옥에서 양옥으로 개조했다

동사구문은 ‘명사+을/를’ 구성을 지닌 목적어 논항을 취하는 타동사구문과 목적어 논항을 취하지 않는 자동사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하나의 구문이 ‘명사+을/를’ 구성을 지닌 문요소를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목적어 논항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6) 내가 십 리를 걸었다

위의 (6)에서 ‘십 리를’은 ‘명사+을/를’ 구성을 지녔지만 목적어 논항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문요소는 (7가)에서 보는 것처럼, 여타의 목적어들과는 달리 수의적인 성격을 지닌 부사(또는 부사어)와 계열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7나)에서 보는 것처럼, 계열체를 이루는 이 요소들은 해당 구문 안에서 공기가 불가능하다.

(7) 가. 내가 (많이 + 십 리를 + 내가 걸은 만큼 + .... ) 걸었다

나. \*내가 십 리를 (많이 + 내가 걸은 만큼 + ... ) 걸었다

그러므로 (7가)의 괄호 안의 요소들은 모두 양화사의 성격을 지닌 수의적 부가어이다. ‘명사+을/를’ 구성을 지녔지만 목적어가 아닌 또다른 예로 다음 예문이 있다.

(8) 가. 길수가 (학교에 + 학교에를 + 학교를) 갔다

나. 내가 길수를 (학교에 + 학교에를 + 학교를) 보냈다

예) 길수는 전주에서 서울로 곧 올라가겠다고 전보를 보냈다

그러나 이 구문의 보문 ‘곧 올라가겠다고’는 술어 명사(= ‘전보’)의 논항이 문장 차원에서 실현된 것이지 동사 ‘보내다’의 논항은 아니다.

예문 (8)의 ‘학교를’은 ‘학교에를’에서 ‘-에’가 빠진 것이고 이때의 ‘-를’은 특수조사로 분석될 수 있다.

### 3. 한국어 동사구문의 유형

#### 3.1 무주어구문

한국어 동사구문에는 주어가 없이 사용되는 구문들이 존재한다. 아래는 그런 구문의 예이다.

(9) 가.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못쓴다

나. 일에다 일을 더하면 이가 된다

(10) 가.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개고기를 먹었다

나. 일본에서는 아직도 혼탕을 한다

(11) 가. 저로서는 길수가 오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저에게는 그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문들이 본질적인 의미의 무주어구문, 즉 주어 자리가 본래부터 비어있는 구문인지 아니면 주어가 생략된 구문인지를 판단하기는 종종 용이하지 않다. (9)의 경우는 조건을 나타내는 ‘-면’ 상황절과 동일한 어휘 요소들로 구성되는 주어절이 동일명사 삭제규칙에 의해서 생략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10)의 경우는 의지적 행위자의 의미를 지니는 주어논항이 비어휘적 형태로(생성문법식으로 하면 공범주 pro의 형태로) ‘-에서’ 보어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11)은 주어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자리는 영어나 프랑스어의 경우는 허사 ‘it’이나 ‘il’이 위치하는 자리인데, 한국어에는 그런 허사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냥 주어 자리를 비워 둔다. 무주어구문은 형용사구문에서도 관찰된다. 아래 형용사구문에서

(12)는 주어 자리가 완전히 비어 있는 구문이고 (13)은 ‘-면’ 절과 동일한 어휘 요소들로 구성되는 주어절이 동일명사 삭제규칙에 의해 생략된 것으로 분석된다.

- (12) 가. 다음 주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나.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 듯하다
- (13) 네가 그런 일을 하면 비겁하다

### 3.2 자동사구문

한국어의 자동사구문은 논항의 수에 따라 1항, 2항, 3항의 구문으로 하위 분류될 수 있다.<sup>4)</sup> 1항의 자동사구문은 다음과 같이 주어 논항만을 지닌 구문이다.

- (14) 아이가 운다 / 장난감이 부서졌다 / 비가 그쳤다 /  
       수미와 준오가 헤어졌다

2항 자동사구문은 주어 논항 외에 보어 논항을 하나 더 취하는 구문이다. 2항 자동사구문이 취하는 보어 논항의 형태에는 ‘-와’, ‘-에/에게’, ‘-에서/에게서/로부터’, ‘-에 대해’, ‘-로’, ‘-에서’, ‘-이’, ‘-고 보문’, ‘-보다’ 등이 있다. 그 예는 차례대로 다음과 같다.

- (15) 가. 경찰이 학생들과 서로 대치했다  
       나. 그 여자가 (길수에게 + 길수의 외모에) 반했다  
       다. 기차가 궤도-(에서 + 로부터) 이탈했다  
       철수가 나-(에게서 + 로부터) 멀어진다

---

4)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무주어구문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 라. 그는 그녀의 말에 대해 반대했다  
 마.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진입했다 / 수미가 반장으로 선출되었다  
 거리가 흰 눈으로 덮였다  
 바. 그는 부산에서 산다 / 이 식물은 습지에서 자란다  
 사. 아이스크림이 죽이 되어 버렸다  
 아. 철수는 그 곳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 우리는 그들보다 뒤쳐졌다 / 그들의 기술이 우리의 기술보다 앞선다

그런데 ‘-에/에게’, ‘-에서/에게서/로부터’의 보어 논항을 취하는 (15나, 다)와 같은 자동사구문 중에는 이 논항이 문두에 위치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주격 논항으로 바뀌어 이중주어구문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 (16) 논-(에 + 이) 물이 말랐다 / 벽-(에 + 이) 곰팡이가 슬었다  
 철수-(에게 + 가) 고민이 생겼다  
 지붕-(에서 + 으로부터 + 이) 물이 샌다  
 그 사람-(에게서 + 으로부터 + 이) 냄새가 난다

3항 자동사구문은 주어 논항 외에 보어 논항을 두 개 더 취하는 구문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들이 있다.

- (17) 가. 길수가 전주에서 서울로 갔다  
 나. 그는 나에게 떠나라고 말한다  
 다. 그는 나와 (그 곳에 가기로 + 그 곳에 가자고) 약속했다

### 3.3 타동사구문

타동사구문도 자동사구문처럼 논항수와 논항의 형태에 따른 하위분류가

가능하지만 전체적으로 다음 두 종류의 구문으로 하위구분될 수 있다. 즉, 목적어의 ‘-을/를’ 조사가 다른 조사와 교체될 수 있는 유형(=(18))과 그것이 불가능한 유형(=(19))이다.

- (18) 가. 그가 공을 (찾다 + 던졌다 + 받았다)  
 나. 나는 길수를 (사랑한다 + 존경한다 + 본다)  
 다. 그는 그 그림을 (그렸다 + 떠올렸다)
- (19) 가. 그는 학교-(에서 + 로부터 + 를) 떠났다  
 나. 그는 숲 속-(에서 + 을) 헤맸다  
 다. 나는 길수-(에 대해서 + 를) 그 말을 생각했다  
 라. 그는 오솔길-(로 + 을) 걸어서 올라갔다

(18) 유형과 (19) 유형은 대체적으로 의미적 차원에서도 구별이 되는 것 같으나 이를 하나의 원리로 형식화하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18) 유형의 목적어에는 주어의 행위에 직접적으로(또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18가)), 주어의 심리, 지각, 인지행위의 대상(=(18나)), 주어의 행위에 의해서 창조되는 대상(=(18다)) 등이 속한다. (19) 유형은 주로 장소 논항이 구성하는데,<sup>5)</sup> 앞서 언급한 (18) 유형의 목적어가 지니는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19) 유형의 장소 논항이 목적어화 될 수 있는 이유는, (20가)의 목적어화될 수 없는 논항과는 달리, (19) 유형의 경우는 주어의 행

5) 우리는 (19다)의 ‘길수-(에 대해서 +를)’ 논항을 추상적 장소 논항으로서, 장소 논항의 일종으로 본다. 일견 지나친 비약으로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이 논항이 (19나)의 ‘숲 속-(에서 +을)’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장소 논항이라고 판단한다. (19나)의 장소 논항은 ‘헤매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Range)의 장소이다. (19다)의 논항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추상적) 영역의 장소이다. 그러므로 이 논항은 ‘생각하다’라는 인지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논항이 아니고 단지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나타낸다. ‘생각하다’의 대상 논항은 (19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수-(에 대해서 +를)’ 논항 뒤에 위치한 ‘그 말’의 목적어 논항이다.



위가 장소에 대한 접촉을 유발하거나 전제함으로 간접적(또 부분적)으로나마 동사의 행위가 장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 같다. 또 이와 동시에 (19)의 장소 논항은 (20나)의 장소 논항과는 달리, 주어의 행위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다가 목적어화되면서 직접적으로(또 전면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바뀐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차이는 해당 동사들의 의미 자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0) 가. 길수는 학교 쪽-(으로 + \*을) 나아갔다

나. 길수는 운동장-(에서 + \*을) 놀았다

대체로 국어학 및 일반언어학에서는 동사의 행위가 그 대상에 미치는 영향성(Affectedness)이란 척도를 가지고서 그것이 높을수록 그 대상은 더 전형적인 목적어를 이룬다는 가설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앞서 보았듯이 타동구문 전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포함한 좀 더 포괄적인 원리적 설명이 요청된다.

### 3.4 구문 대응의 유형

한국어 동사 중에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구문 형태를 용인하고 그 구문들 사이에 규칙적인 상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사들이 존재한다. 이런 구문 대응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대응 관계가 다른 언어에서도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대응 유형이 존재하기도 하고 한국어 동사구문 특유의 대응 유형이 존재하기도 한다. 또 그 대응 유형이 형용사구문에서도 동일하게(또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존재하기도 하고 관찰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어 동사구문의 주요 대응 유형을 살펴본다.

- 자동사, 타동사 양용 동사의 구문

먼저 한국어 동사 중에는 앞서 언급한 조사교체 구문 외에도, 자동사구문과 타동사구문을 동시에 구성할 수 있는 동사들이 존재한다. 그런 동사들 중에 몇 가지 유형만 언급한다. 첫째로 이른바 중립동사라 불리는 동사들이 존재한다.

- (21) 바위가 움직였다 - 그가 바위를 움직였다
- 쏟값이 내렸다 - 정부가 쌀값을 내렸다

중립동사란 자동사구문의 주어가 관련된 타동사구문의 목적어 위치에 분포하고 또 타동사구문의 주어로 능동적 행위자를 취하는 주·사동 양용동사이다. 이런 유형의 대응은 여러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한국어 동사에는 아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립동사와 유사한 또다른 유형의 자·타동 양용동사들이 존재한다.

- (22) 그 나무의 줄기가 잘렸다 - 그 나무가 줄기를 잘렸다
- 철수의 머리가 깎였다 - 철수가 머리를 깎였다

이 동사들은 자동사구문의 주어가 관련된 타동사구문의 목적어 위치에 분포한다는 점에서는 중립동사와 동일하지만 타동사구문의 주어가 능동적 행위자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행위의 영향을 받는 피해주(Patient) 정도로 특징지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언어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유형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립동사와는 구별된다. 위와는 또다른 유형의 자·타동 양용 동사에는 '생각하다'와 같은 인지동사나 '말하다'와 같은 발화동사들이 존재한다. 이 동사들은 흔히 사유나 발화의 대상을 목적어로 취하는 타동사구문과 사유나 발화의 결과적 내용을 주로 '-고' 보문으로 나타내는 자동사구문을 함께 지닌다.

- (23) 나는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  
 나는 나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한다
- (24) 나는 그에게 내 생각을 숨김없이 말했다  
 나는 그에게 공부를 계속하라고 말했다

- 대칭동사구문과 상호동사구문

또다른 구문 대응의 유형으로 대칭동사구문의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 (25) 길수는 영희와 그렇게 약속한다 - 길수와 영희가 그렇게 약속한다  
 (26) 길수는 영희와 이혼했다 - 길수와 영희가 이혼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동사들은 동사가 표현하는 행위를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행위를 하는 두 참여자를 필요로 하고 이 두 참여자는 통사적으로 각각 주어 자리(또는 목적어 자리)와 '-와' 보어 자리를 점하거나 두 참여자가 등위접속을 이루어서 함께 주어 자리(또는 목적어 자리)<sup>6)</sup>를 점하는 구문을 이룬다. 이 두 구문은 동의관계를 이룬다. 이런 대응 관계를 보이는 대칭동사는 두 종류로 하위 구분될 수 있다. 즉 (25)의 '약속하다'처럼 일 방향의 서로 다른 두 행위가 합쳐져서 쌍방향의 행위를 이루는 경우와 (26)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5) 구문은 (27)의 두 구문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6)의 경우는 (28)에서 보듯이 이런 분석이 불가능하다.

- (27) 길수가 영희에게 그렇게 약속한다 - 영희가 길수에게 그렇게 약속한다  
 (28) \*길수가 영희를 이혼한다 - \*영희가 길수를 이혼한다

6) 다음 예문은 대칭을 이루는 두 논항 또는 그 중 한 논항이 목적어 자리에 놓이는 예이다. 예) 나는 그 책과 이 책을 바꿨다 - 나는 그 책을 이 책과 바꿨다

대칭구문은 형용사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위에서 언급한 두 하위유형이 모두 발견된다.

- (29) 가. 길수가 영희에게 아주 다정하다 - 영희가 길수에게 아주 다정하다  
 나. 길수가 영희와 아주 다정하다 ↔ 길수와 영희가 아주 다정하다
- (30) 가. \*길수가 영희에게 같다 - \*영희가 길수에게 같다  
 나. 길수가 영희와 같다 ↔ 길수와 영희가 같다

대칭동사구문과 유사한 구문으로 상호동사구문이 있다. 이 구문은 대칭구문이 '서로'라는 부사를 수의적으로 용인하는 데에 반해 '서로'를 필수적으로 취해야만 대칭구문처럼 기능할 수 있는 구문이다.

- (31) 가. \*길수는 영희와 등을 밀어 주었다  
 나. 길수는 영희와 서로 등을 밀어 주었다
- (32) 가. \*길수는 영희와 의지한다  
 나. 길수는 영희와 서로 의지한다

그런데 상호동사구문은 모두 한 방향의 두 행위가 겹쳐져서 이루어진 행위들을 나타낸다.

- (33) 가. 길수가 영희에게 등을 밀어 주었다  
 나. 영희가 길수에게 등을 밀어 주었다
- (34) 가. 길수는 영희(에게 + 를) 의지한다  
 나. 영희는 길수(에게 + 를) 의지한다

형용사의 경우에도 상호구문이 존재하는데, 동사와 다른 점은 상호구문을 형성하는 형용사의 수가 동사에 비해서 훨씬 많다는 것이다. 아래의 예가 시

사하는 바와 같이, 형용사는, 동사와는 달리, ‘-에게’ 보어를 취하는 태도형용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상호구문을 형성한다.

- (35) 길수와 영희는 서로 (무관심했다 + 냉정했다 + 덤덤했다 + 차가웠다 ...)  
 (36) 길수가 영희에게 (무관심했다 + 냉정했다 + 덤덤했다 + 차가웠다 ...)  
       영희가 길수에게 (무관심했다 + 냉정했다 + 덤덤했다 + 차가웠다 ...)

- 장소교차구문

대응구문의 또다른 유형으로 장소교차구문이 있다. 다음 (37가), (38가)를 보면, 조사 ‘-에’를 갖는 장소 보어가 그에 대응되는 구문 (37나), (38나)에서는 각각 주어 또는 목적어와 관련된다. 이런 장소교차구문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불어 등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범어적인 구문대응유형이다.

- (37) 가. 방안에 벌레들이 우글우글하다  
       나. 방안이 벌레들로 우글우글하다  
 (38) 가. 그는 서재에 책을 채웠다  
       나. 그는 서재를 책으로 채웠다

(37)과 같은 장소교차 자동사구문 중에는 (39)와 같은 구문이 있다.

- (39) 가.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인다       나. 밤하늘이 별들로 반짝인다

그런데 (39) 구문은 (37) 구문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37)의 경우는 ‘-에’ 보어나 ‘-로’ 보어가 그 구문에서 빠질 수 없다. 혹은 빠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생략문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39)의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37') 가. \*벌레들은 우글우글하다

나. \*방안이 우글우글하다

(39) 가. 벌들은 반짝인다

나. 밤하늘이 유난히 반짝인다

- 상적 변형 구문

한국어에는 동사의 어휘적 의미 중에서 상적 의미가 변화하면서 구문을 달리 갖는 동사들이 존재한다. 다음이 그 예이다.

(40) 가. 우리는 반장을 뽑았다

나. 우리는 철수를 반장으로 뽑았다

전자의 구문이 어떤 직책의 책임자를 선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다면 후자의 경우는 그 과정의 결과를 나타내는 종결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동사들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 구문의 목적어 명사가 후자 구문의 '-로' 보어의 위치에 분포한다.

(41) 가. 나는 선물을 골랐다

나. 나는 그 책을 선물로 골랐다

(42) 가.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했다

나. 우리는 그를 지도자로 선택했다

- 도구보어 구문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다음 두 구문에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43) 가. 나는 쌀을 되로 된다

나. 나는 되를 된다

즉 이런 동사들은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가 '-로' 보어로 나타나는 구문과 그 도구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나는 두 구문을 갖는다. 그런데 후자 구문의 경우에는 종종 전자 구문과는 달리 도구명사가 구상성을 상실하고 일종의 동족 목적어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후자 구문에 나타나는 도구 명사에는 수식어나 한정어를 붙이기가 어렵다.

(44) 가. 나는 쌀을 (그 + 빌려온 + 비싼) 되로 된다

나. 나는 (\*그 + \*빌려온 + \*비싼 + E) 되를 된다

(45) 가. 아내는 박을 (그 + 빌려온 + 비싼) 톱으로 컸다

나. 아내는 (\*그 + \*빌려온 + \*비싼 + E) 톱을 컸다

(46) 가. 나는 아이를 (그 + 긴 + 굵은) 회초리로 때렸다

나. 나는 아이에게 (\*그 + \*긴 + \*굵은 + E) 회초리를 때렸다

그렇지만 후자 구문에서도 도구 명사가 여전히 구상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아래와 같이 발견된다.

(47) 가. 길수는 콜라를 (그 + 빌려온 + 비싼) 빨대로 빨았다

나. 길수는 (그 + 빌려온 + 비싼) 빨대를 빨았다

한편 도구를 '-로' 보어로 나타내는 동사들 중에는 다음의 또다른 두 구문에 규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48) 가. 경찰이 데모대를 바리케이트로 막는다

나. 바리케이트가 데모대를 막고 있다

(49) 가. 길수가 영희의 눈을 붕대로 가린다

나. 붕대가 영희의 눈을 가리고 있다

#### 4. 동사 용법의 유형화

한 동사가 구문 안에서 기능하는 양상은 또 다른 관점에서 유형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일반동사, 숙어동사, 보조동사, 기능동사로의 구분이다. 일반동사란 하나의 동사가 격들과 의미역을 지배하면서 그 구문의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는 용법이다. 숙어동사란 동사가 숙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태우다'의 '태우다'나 '파리를 날리다'의 '날리다' 동사는 숙어동사라고 할 수 있다. 보조동사란 원칙적으로 구문의 격들과 의미역을 지배하지 않으며 자립성이 없고 본동사에 붙어서 문법적, 어휘적 의미를 첨가해 주는 동사이다. 마지막으로 기능동사란 서술어가 명사 범주로 어휘화된 술어명사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문에서 동사 위치에 사용되어 문장을 완결시키는 동사 어휘를 지칭한다. 어휘 범주상으로 보면 동사이지만, 의미적 술어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는 동사를 말한다. 술어가 구문을 이룰 때 요구되는 문법범주의 실현(시상, 태)만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점에서 술어의 밀받침이 되는 동사이다. 영·미 언어학계에서는 에스페르센(Jespersen)에 따라 경동사(light verb)로 지칭되기도 한다. 다음의 동사들은 기능동사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예이다.

- (50) 도움을 주다(=돕다) / 합의를 보다(=합의하다) / 도망을 치다(=도망하다)  
 계획을 세우다(=계획하다) / 이해가 가다(=이해되다)

‘술어명사+기능동사’ 연쇄가 일반동사 구문과는 다른 특이한 속성을 지닌 구문을 구성하고 있음은 이미 밝혀졌지만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할 국면이 많다. 예를 들어, 기능동사가 해당 구문에서 차지하는 서술어로서의 역할이 문법범주의 실현(시상, 태) 정도로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구문의 격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배하는지, 또 구문의 의미역 구조에도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은 좀 더 연구되어 밝혀져야 할 사안들 중 일부이다.



## 5.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동사구문의 주요 통사적 속성들을 살펴보고자 한국어 동사구문의 유형론적 특징, 논항과 부가어의 구분 문제, 구문 형태 및 대응의 유형 그리고 용법의 구별 문제 등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우리는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고 최근의 언어학적 논의를 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입장을 취했다. 또 곳에 따라, 무주어구문이나 타동사구문 등 일부 필자의 견해를 피력한 부분도 있다. 이는 학자들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서 향후 좀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